KIEP
오늘의 世界經濟
World Economy Update

제 01-65 호 / 2001년 12월 28일 발간

유로화 실물화폐 도입의 영향과 전망

작성자 : 국제거시금융실 윤덕룡 연구위원
【dryoon@kiep.go.kr】

主要內容

▣ 2002년 1월 1일부터 영국, 스웨덴,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의 12개국이 자국화폐를 퇴장시키고 유로화를 공동의 단일 실물화폐로 도입하게됨.

- 유로화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2월 28일까지 기존화폐를 병용하나 그 이후에는 일정기간 은행에서 교환만 가능하며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음.

▣ 2002년 유로화 실물화폐의 도입은 그동안 잠재수요로만 존재하던 유로의 수요를 실제 수요화함으로 향후 유로화의 국제화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
- 유로화는 교역시 결제통화로는 적어도 교역비중인 25%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외화보유자산으로도 25-30%를 점유하게될 것이며 자본시장에서 유로화시장의 영향력이 커짐으로 국제통화체계를 美달러와 양분할 것으로 전망됨.

▣ 한국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사용국 시장에서 경쟁심화를 겪게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유럽시장의 확대 및 단일화에 따른 수출신장, 달러화 위주의 외화관리 탈피에 따른 금융안정화 효과, 자본공급의 원활화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.

- 단기적으로 유로사용국의 효율성 상승으로 유로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, 화학, 철강, 전기전자등의 분야에 교역위축이 발생할 수 있음.

- 유로화의 실물화폐 도입으로 인한 유로화의 가치상승과 유럽시장 확대, 국제금융질서 재편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전략적 대비가 필요함.

Ⅰ. 유로화 지폐 및 주화의 통용일정

□ 1999년 장부통화로 도입된 유로(Euro)화가 2002년 1월 1일부터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12개국에 실물지폐 및 주화로 도입되며 개별국의 통화는 퇴장하여 이 지역 통화통합이 완성됨.

– 일반적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유로화와 개별국 통화를 병용하나 그 이후에는 유로화만 통용되며 한시적으로 일반은행에서 개별국통화를 유로화로 교환하여 주고 그 이후에는 중앙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함.

- 자국의 법정통화 효력정지를 네덜란드, 아일랜드, 프랑스는 1월말 2월 중순으로, 독일은 2001. 12. 31일로 설정하였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2월말까지 금융·상거래에서 양 통화를 병용

- 1999년 유로도입시 계획으로는 2002년 실물화폐 도입시 6개월간의 병용기간을 거치기로 하였으나 적응기간 단축과 혼란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9년 11월 8일 EU의 경제·재무장관회의에서는 병용기간을 최대 2개월로 줄일 것을 합의함.

- 유로화의 도입과 교환에 대한 개별국가의 세부계획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<표1>과 같이 결정됨.

- 유로화 실물화폐의 도입으로 참여국의 모든 현금자동지급기에서는 유로화만 지급하며 은행에서도 화폐의 지급은 유로화만으로 이루어지며 병용기간동안에도 상점에서 자국화폐로 지불은 할 수 있으나 거스름돈은 유로화로만 지급함.

- 모든 예금계좌는 유로로 전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계좌 개설도 유로로만 가능하며 임금 및 연금등의 지급도 유로로 이루어져야 함.

- 기업 및 관공서등의 회계문서, 공문서등에서 회계단위는 모두 유로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업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새계약들과 비현금 결제도 유로화로만 이루어지게 됨.

- 각국 중앙은행들은 현재 유로지역내 타국 통화를 자국화로 교환해주는 업무를 행하고 있는 데 유로화 도입 후 동 업무는 2002. 3월말까지만 수행하게됨

<표 1> 국별 현금공급 및 교환일정

	현금조기공급 (Frontloading)	일반에 대한 자국통화의 조기공급*	일반 금융기관의 법적효력 종료일	중앙은행의 자국 화폐교환 종료일	자국 화폐 교환기간
독일	주화: 2001.9.1 지폐: "	2001.12. 17	2001.12. 31	최단시일내에 2002. 2.28	영구
프랑스	주화: 2001.9.1 지폐: 2001.12.1	2001.12. 15	2002. 2. 17	2002. 6. 30	주화: 3년 지폐: 10년
이탈리아	주화: 2001.9.1 지폐:2001.11.15	2001.12. 15	2002. 2. 28	미정	10년
스페인	주화: 2001.9.1 지폐: "	2001.12. 15	2002. 2. 28	2002. 6. 30	영구
네덜란드	주화: 2001.12.1 지폐: "	2001.12. 17	2002. 1. 28	2002년말 *4.1부터는 수수료 징수	주화:2007. 1.1 지폐:2032. 1.1
그리스	주화: 2001.10.1 지폐: "	없음	2002. 2. 28	은행별로 결정	주화: 2년 지폐: 10년
벨기에	주화: 2001.9.1 지폐:2001.11. 1	2001.12. 15	2002. 2. 28	2002년말	주화: 2004년말 지폐: 영구
포루투갈	주화: 2001.9. 1 지폐: 2001.10.1	2001.12. 17	2002. 2. 28	2002.6.30	주화: 2002년말 지폐: 20년
오스트리아	주화: 2001.9.1 지폐: "	2001.12. 17	2002. 2. 28	은행별로 결정	영구
핀란드	주화: 2001.9.1 지폐: "	2001.12. 15	2002. 2. 28	은행별로 결정	10년
아일랜드	주화: 2001.9.1 지폐: 2001.12.1	-	2002. 2. 9	은행별로 결정	영구
룩셈부르크	주화: 2001.9. 1 지폐: "	2001.12. 15	2002. 2. 28	2002. 6. 30	주화: 2004년말 지폐: 영구

주: * 지폐는 모든 나라에서 2002.1.1일부터 공급.

* 자료: ECB(2001. 5월)

2.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서의 기능 강화

•

□ 국제거래에서 회계단위로서 유로화의 기능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.

- 민간분야에서는 국제교역의 1/4이상이 유로지역과 이루어지므로 교역이나 금융거래에서 유로화를 기준으로 환산이 있게될 것임.

- 현재 유럽각국의 통화는 50개국 이상에서 기축통화 혹은 통화바스켓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로화의 기축통화였던 독일 마르크화(DM)는 30~40%가 국외에서 유통되고 있어서 유로화가 국제거래의 회계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.

□ 국제거래에서 교환수단으로서 유로화의 기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.

- 현재 민간부문에서 무역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화폐로는 달러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유로화 실물화폐의 도입이후에도 50%이상은 달러화 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유로화를 통한 결제가 적어도 교역비중인 25%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- 공공부문에서는 외환시장의 개입화폐로 유로화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 현재 공적 금융 매개를 위한 화폐로는 달러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외환거래에서 달러화는 42%, 유럽통화는 35%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로화 실물화폐의 도입은 이 비중을 확대하게 될 것임.

□ 국제화폐로서 유로화의 가치저장 수단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됨.

- EU 15개국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7조 달러, 그리스를 제외한 유로 11개국의 규모는 21조 달러에 해당하며 미국은 23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므로 유로 12개국에 현물화폐로 유로가 공급되면 미국에 버금가는 투자 및 국제자본 공급통화로서의 기능이 예상됨.

- 유로12개국의 상호간 거래에 대비한 외환보유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유동성, 발권능력 증대에 따른 seigniorage 확대, 유로화의 가치상승이 이루어 질 경우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자본 공급능력이 크게 신장되며 유로권은 주요 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높음.

- 그외 다른 통화권에서 유로화로 이전되는 국제민간자본이 4천억 8천억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됨.

- 현재 전 세계의 외화보유 통화로는 달러화가 66%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국가

들의 통화는 12%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물화폐 도입으로 유로의 비중은 25%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됨. Deutsche Bank는 유로의 외화 보유비중이 25 30%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 외화자산의 5000억 1조 달러가 유로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봄.

3. 유로화 도입이 유럽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□ 거래비용(transaction cost)절감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효과이며 외환중개수수료의 절약만도 EU GDP의 5%에 접근하는 연 200억~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추정함.

□ 환율의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자본이동이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유로통화권의 각국간에 가격비교가 용이해지므로 경쟁이 촉진되어 물가가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, 이는 메뉴비용(menu costs)감소에 따른 미시적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
□ 유럽역내 환율체제인 ERM 유지를 위한 시장개입 필요성이 소멸하고 대외환율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기능도 유럽중앙은행(ECB)이 담당하게되므로 외환보유의 필요성이 사라지게됨.

- 외환보유의 필요성 소멸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
- 초과 외환보유량이 자본시장에 방출되면 자본의 공급확대에 따라 이자율이 감소하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게되며 국제자본시장에서 유럽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될 것임.

□ 유럽금융시장이 금융기관간의 대형화 혹은 겸업화등으로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유럽금융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.

- 자본공급의 확대에 따라 유럽내에 저금리 현상이 정착되면 이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게되고 연기금의 증시 유입 및 국가간 주식투자 활성화를 가져올 것임.

- 유로통화의 실물화폐 도입으로 환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제거되면 채권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기업들은 유럽시장 전체를 상대로 회사채발행이 용이하여지므로 직접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개별국가의 통화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간 거시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독자적인 환율정책 및 통화정책의 사용불가로 경기조절의 어려움이 예상됨.

□ 통화장벽 제거로 역내시장의 통합이 완성됨. 특히 상이한 통화사용으로 인한 가격왜곡 현상이 시정되어 단일가격체제가 형성되고 현재 60%대인 역내교역이 더욱 증가하여 실질적인 시장통합이 완성될 것임.

□ 유럽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유로화의 국제적 사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주조이득 (seigniorage)을 얻게되며 이 이득을 공유하게되어 개별국 통화가 가지지 못했던 추가적인 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됨.

□ 저금리 현상 정착, 물가의 안정, 통화장벽의 제거등은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와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. IMF의 추정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으로 EU 경제가 2010년까지 연간 0.3%의 추가성장과 2.0%의 실업감소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4. 유로화 도입이 유럽 역외경제에 미치는 영향

□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이나 거래를 위해 더 이상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고 유로화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결제통화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.

□ 달러화가 유일한 국제화폐로 통용되던 국제통화제도에 변화가 야기되어 국제통화로서 유로화의 위치가 신장되고 달러와 유로화를 중심으로한 양극화 현

상이 발생하게될 것임.

- 국제통화제도가 달러화와 유로화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일본 엔화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하게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유로화 실물화폐 도입으로 유럽국가들간 역내시장의 통합이 강화되면 역외교역은 종합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- 유럽역내시장 통합의 강화는 무역전환효과의 증가를 가져와 역외국 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나 무역창출효과의 강화는 역외수입을 증가시키게 되어 그 순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역외수입감소, 장기적으로는 역외수입증가가 예상됨.

-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유로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소득효과는 역내국가들의 소비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역외로부터의 수입을 상승시키게 될 것임.

- IMF는 유로화로의 완전한 화폐통합은 환거래비용 및 리스크 감소, 역외기업의 투자확대, 역내교역 활성화를 가져와 향후 10년 동안 $670억 교역 증가 효과를 발생하게될 것으로 추정함.

□ 유로화 실물화폐의 도입은 역내국가간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.

- 유로화의 실물화폐도입은 역내 금융시장을 통합하게되어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의 감소를 가져와서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게 됨.

- 역내시장의 통합강화는 시장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고 투자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직접투자의 증가를 유발하게됨.

□ 유럽의 자본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이 미국과 유럽으로 양분화 될 가능성이 높음.

- 그러나 달러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자본시장의 관성효과로 국제기축통

화로서 유로화의 부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
- 달러화는 미국의 막대한 국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기의 발생시마다 안전통화(safe haven currency)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어 유로화로의 기축통화 기능이전을 지연시키게 될 것으로 보임.

5. 유로화 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

□ 국제통화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로화 보유 비율확대가 필요함.

- 한국은 과거 외환보유고의 95%를 미달러로 보유하였으나 최근들어 유로화 보유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음. 유로화의 보유비율을 증가시킴으로 달러화의 가치변동이나 달러화 수급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됨.

- 국제통화로서 유로화의 기능확대로 자산보유수단으로서 유로화 보유비율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□ 대 EU 수출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함.

- 유로화 실물화폐 도입에 따른 유럽기업들의 비용절감효과 및 효율성 증가로 유럽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는 분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 예상됨.

- 특히 자동차, 화학, 철강, 전기전자 분야의 수익성이 감소되고 경쟁에서 불리하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.

- 한국기업들도 유럽과의 거래시 단일통화, 단일한 회계기준 등 시장의 통합현상을 통해 수출비용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 EU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됨.

□ 유럽과의 거래를 유로화로 진행시키기 위한 전환작업이 준비되어야 기업의 충격을 피할 수 있음.

- 유로화도입에 따른 장애발생(EURO bug)에 대비하여 회계단위를 유로화로 전환하고 전산작업도 유로화 기준으로 준비되어야 함.

- 유로화를 통한 결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기존계약에 대한 전환여부 확인과 향후 계약들에서 유로화 적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.

- 주문, 선적, 지불과 관련된 서류들을 유로화기준으로 준비하고 잠정기간동안 단기적으로 이중통화체제로 구성하여 필요시 유로화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.

□ 수출입 결제통화 구성에서 달러화 비율을 낮추고 유로화의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.

- 1997년 기준 한국의 수출입 결제에서 달러화 결제가 80~90%를 차지하였으며 유럽통화 결제는 수입시 3%, 수출시 4%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유로권 지역과의 교역에는 유로화 결제가 회계나 금융비용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.

- 향후 유로화는 유럽 전지역과 동구국가들까지 사용지역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 국가들과의 수출입 결제에도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게될 것으로 보임.

□ 한국은 외채의 상당부분을 EU국들로부터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달러표시 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로화권 국가들의 채무를 유로화로 전환하여 달러화 부족에 따른 위기를 겪지 않도록 채무통화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.

- 한국이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여짐으로 채무의 포트폴리오구성에서도 유로화 비율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.

□ 유로화 채무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유럽국가들의 초과 외환보유고가 자본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유로지역 채무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.

- 유로화 차입시 유럽국가의 화폐를 달러로 전환하여 차입하던 것에 비해 차입비

용이 감소하게 되므로 유로채무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유로화 실물화폐 사용이 확대되면 달러화 단독으로 구성된 지금까지의 금융 및 외환관리 구조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긍정적 기회를 얻게되고 달러화 단일 통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임.

6. 유로화 장래의 전망과 시사점

□ 유럽은 이미 1999년 장부화폐로의 유로화 도입 이후 평균 경제성장율이 3% 대에 달하고 인플레는 평균 2%로 안정되는 등 유로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음.

□ 향후 유로화에 대한 잠재수요가 모두 현실화하고 역내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유로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될 가능성이 높음.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유로자산을 확보하거나 Call Option의 구매로 자산확보 가능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음.

□ 장기적으로 유로화의 국제화폐로서의 기능확대로 국제 금융질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적응전략의 수립이 요구됨.